

《위원입교인규도》에 나타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A Study of a Method on the Catechumenal Practice in the Korean
Military Context, Vision 2020: With a Focus on a Contemporary
Application of the Korean Early Presbyterian Treatise,
Wee-won-ihp-gyo-ihn-gyoo-dyo(1895)



최석환 군종목사

- 총신대학교 졸업(B.A., M.Div., Th.M.)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B.A.)
-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철학박사(Ph.D.)
- 육군 제37보병사단 충용교회 담임목사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들어가는 말

2000년 이후에 육군에 복무한 병사들 중 입대하기 전부터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184명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설문하여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¹⁾ 군인 교회에서의 세례자 교육이 부실했음이 드러났다. 연구 결과 육군에 복무한 병사들은 훈련소에서 실시되는 집단 세례가 신앙과 관련없이 형식적으로 주어지며, 성례로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군종목사를 포함

한 군선교 사역자와 교회에 의한 체계적인 세례자 교육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훈련소에서 세례가 베풀어질 때 세례를 받는 장병들의 분명한 신앙고백이 확인되었습니까?”라는 설문에는 연구대상 184명 중 162명(88%)이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세례는 믿음의 성례(Taufe ist sacramentum fidei)이며,²⁾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는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극화(劇化)이다. 그러나 상기한 것처럼 군인 교회가 세례자 교육을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신앙고백을 개인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세례를 집행하는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다.³⁾ 이에 한국 교회의 세례자 교육에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장로교 초기 문헌들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자는 그 장로교 초기 문헌 1차 자료를 세 가지로 분류한다.⁴⁾ 첫째, 신앙교육 문서로서, 《예수교문답》의 원판인 《그리스도문답》(1893),⁵⁾ 한국 장로교 최초의 세례문답서 《예수교문답》(1894),⁶⁾ 한국 장로교 최초의 세례자 교육서 《위원입교인규도》(1895),⁷⁾ 1907년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평양 ‘장디재 레비당’에서 개최된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회의록인 《대한예수교장로회회회록》

(1908),⁸⁾ 한국 장로교 최초의 신앙고백서와 정치조례 《대한예수교장로회 신경과규칙》(1910)⁹⁾이다. 둘째, 목회학 문서로서, 한국 장로교 최초의 목회학 저서 《목수지법》(1919),¹⁰⁾ 객안련(Charles Allen Clark, 1878-1961)의 《목회학(The Work of the Pastor)》(1925),¹¹⁾ 《목회학》(1936)¹²⁾이다. 셋째, 예식서 문서로서, 영어로 기록된 《조선 예수교 장로회 헌법》(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1919),¹³⁾ 한국 장로교 최초의 예배지침서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 ‘예배모범’ (1922),¹⁴⁾ 한국 장로교 최초의 한국인에 의한 예식서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¹⁵⁾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 ‘예배모범’ (1934)¹⁶⁾이다.

세례자 교육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 교회 장로교 초기 문헌을 신앙교육 문서, 목회학 문서, 예식서 문서로 나누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신앙교육 문서에서는 한국 교회 장로교 초기 세례문답 교육을 연구할 수 있고, 목회학 문서에서는 한국 교회 장로교 초기 세례집례 방안을 연구할 수 있고, 예식서 문서에서는 한국 교회 장로교 초기 세례식 순서를 연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 교회 장로교 초기 세례문답 교

1) 남송현, “Vision 2020 실천운동을 중심으로 한 한국 군선교의 선교학적 분석 - 입대 전 신앙인으로 2000년 이후 육군에 복무한 사병들을 대상으로-”(Th. D. dissertation, 종신대학교, 2006), pp. 86, 107-115.
2) Theodor Schneider, *Zeichen der Nähe Gottes: Grundriss der Sakramententheologie* (Mainz: Matthias-Grünwald-Verlag, 1979), 82, 94-106; 김세윤, 《구원이란 무엇인가》(서울: 두란노, 2001), p. 67.
3) 다음을 참조하라. 윤병국, “미래 군구조 개편에 따른 군선교 개선방안 - 군종목사들의 이해를 중심으로-”(Th. D. diss., 종신대학교, 2006), 100-102; 주연중, “진중세례운동의 회고와 전망,” 《군선교신학 1》(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4), pp. 190-217.
4) 최석환, “예수교문답에 나타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신학과 목양>(서울: 솔로몬, 2008), pp. 511-513.
5) H. S. C. Nevius, 《그리스도문답》, H. G. Underwood 역(경성: 그리스도성서, 1893).
6) H. S. C. Nevius, 《예수교문답》, H. G. Underwood 역(경성: 그리스도성서, 1894).
7) 馬布三悅(Samuel Austin Moffet), 《爲願入教人規條 위원입교인규도》(京城: 朝鮮耶穌敎書會, 1895).

8) 《대한예수교장로회회회록》(경성: 대한예수교장로회, 1908).
9)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경성: 대한예수교장로회간인, 1910). 참고적으로 영문제목은 “CONFESSION OF FAITH AND FORM OF GOVERNMENT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이다.
10) 郭安連(Charles Allen Clark), 《목수지법(牧師之法)》(京城: 朝鮮耶穌敎書會, 1919).
11) 객안련, 《목회학》(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25).
12) 객안련, 《목회학》(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36). 다음의 책도 참조하라. 객안련, 《목회학》(경성: 대한기독교서회, 1955); 객안련, 《목회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13)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Seoul: Korean Religious Book and Tract Society, 1919).
14) 《朝鮮 예수敎 長老會 憲法》(京城: 朝鮮耶穌敎書會, 1922). 헌법이 출판된 역사적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장로교 최초의 독노회(1907)에서 ‘소요리문답’, ‘신조’, ‘규칙’ (1907)을 채택하였으며, 총회 조직(1912) 후 ‘권징조례’와 ‘예배모범’ (1919)을 채택하였다. 그후 간단한 정치조례인 ‘규칙’을 폐지하고 완성된 ‘정치 조례’ (1922)를 확정하였다. 이로써 信經, 小要理問答, 政治, 禮拜模範, 勸懲條例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 공식적인 《朝鮮 예수敎 長老會 憲法》 (1922)이 출판되었던 것이다.
15) 《朝鮮 예수敎 長老會 婚喪禮式書》(京城: 發行所 未詳, 1924).
16)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34).

육과 세례집례 방안과 세례식 순서를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한 문헌들 중에서 한국 장로교 최초의 세례자 교육서인 《위원입교인규도(爲願入敎人規條)》(1895)를 소개하며 군인 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 세례자 교육방안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한다.¹⁷⁾

1. 《위원입교인규도》의 의의와 내용

《위원입교인규도(爲願入敎人規條)》(1895)¹⁸⁾는 평양신학교 설립자이자 한국 장로교회 창건자 중의 한 사람인 마펫 선교사(Samuel Austin Moffet, 馬布三悅, 1864-1939)에 의해, 중국 산둥반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네비우스(John Livingstone Nevius, 1829-1893)의 책 《Manual for Enquirer》를 주로 참고하고 한국인 교사의 도움을 받아 편저하였다.¹⁹⁾ 김양선은 《위원입교인규도》(1895)를 초신자를 위한 초보적 기독교 교리서(Manual for Catechumens)라고 했으며,²⁰⁾ 김경진은 이 책을 한국 장로교회의 예전 발전에 있어서 기념비적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²¹⁾ 연구 결과 《위원입교인규도》(1895)는 한국 장로교 최초의 세례자 교육서로

서 장로교회의 원입교인(願入敎人)이 배워야 할 신앙안내서라는 것을 피력하고자 한다. ‘원입교인’ (願入敎人)이란 ‘입교를 원하는 사람’ 이란 뜻으로 결국 입교인이 되어 세례 받을 자를 뜻한다. 이는 목사와 장로들이 당회를 구성하여 ‘원입교인’ 중에서 ‘입교인’ 을 작성하여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이다.²²⁾ 《위원입교인규도》(1895)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目錄	목록
各式禱告文	각식도고문
聖書工夫	성서공부
守主日論	주일을직회논의론
聖禮論	성례의론
洗禮	세례
聖餐	성찬
教會規模	교회규모
教會治理法	교회치리법
捐補錢條畧	연보전도략
讚頌詩	찬송시 ²³⁾

상기한 것처럼《위원입교인규도》(1895)는 각종 기도문, 성서공부, 수주일론(守主日論), 성례론, 교회규모, 교회치리법, 연보전도략, 찬송시 등을 다루고 있다. 이중 성례론의 세례 부분을 언급하며 그 당시의 세례의 이해를 논할 것이며, 《위원입교인규도》(1895)를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그 당시에 어떻게 세례자를 교육했는지 그 방법을 연구할 것이다.

17) 다음을 참조하라. 최석환,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 한국 장로교 초기 문헌의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Ph. D. dissertation, 종신대학교, 2007), 130-149; 최석환,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 한국 장로교 초기 문헌의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군선교신학6》(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8), pp. 270-276.

18) 馬布三悅(Samuel Austin Moffet), 《爲願入敎人規條 위원입교인규도》(京城 韓聯邦敎書會, 1895).

19) 김태규, “한국 교회 초기 문헌의 역사적 고찰에 따른 성찬신학과 실제”(Ph. D. diss., 백석대학교, 2006), 228-230. 다음을 참조하라. 김태규, 《한국 교회 초기문헌에 나타난 성찬신학과 실제》(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9), pp. 204-226.

20) 김양선, “韓國 基督教 初期 刊行物에 關하여(1882-1900),” 《사촌》 제 12·13집(1968. 9), p. 594.

21) Kim Kyeong Jin, “The Formation of Presbyterian Worship in Korea, 1879-1934” (Th. D. diss., Boston University, 1999), 102.

22) 馬布三悅, 《爲願入敎人規條》, p. 25.

23) *Ibid.*, p. 3.

2. 《위원입교인규도》에 나타난 세례의 이해

1) 성례의 목적과 의의

《위원입교인규도》(1895)의 성례론을 보면 두 가지 성례의 목적과 의의를 다루고 있다.

예수-교회를 세우실 때 성례 두 가지를 행하셨으니 이 두 가지는 세례와 성찬이라 믿는 사람의 의례는 해를 배프러 더욱 돈독히 믿게 하고 세상 풍속을 끊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은덕을 더욱 중히 여기게 하는 거시라 이 성례는 목사가 배프는 거시니 믿는 사람의 의례에 예수와 연합하게 하는 인친 표적이라²⁴⁾

《위원입교인규도》(1895)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성례의 목적은 세 가지이다. ①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더욱 든든히 믿게 한다. ② 세상 풍속을 끊어버리게 한다. ③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은덕을 더욱 중히 여기게 한다. 성례의 집행자는 목사이며, 성례의 의의는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인친 표적이다.

2) 세례의 정의

《위원입교인규도》(1895)에 의하면 세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24) Ibid., p. 17.

세례는 목사가 예수님의 명대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씻어 그 사람이 예수와 연합하여 새로 언약한 은혜를 받는 것을 볼게 나타내어 인쳐 증거하고 또 성령의 복이 되어 거룩한 교회로 드려 오기를 들게 하는 것이라 물로 몸을 씻는 거시 안으로 성령이 죄를 사하고 마음을 씻게 하는 표적이니 물로만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쓸데없으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 중히 여기고 예수님의 명대로 조차 세례를 받고 교회로 들어 올 거시라 이 세례는 교회로 드려 오는 레라²⁵⁾

위의 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① 세례는 목사가 집행한다. ②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거하여 베풀다. ③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준다. ④ 세례는 물로 씻어 세례 준비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 언약한 은혜 입는 것을 밝게 나타내어 인쳐 증거한다. ⑤ 세례는 또한 주의 백성이 되어 거룩한 교회로 들어 오기를 기쁘게 여기는 맹세이다. ⑥ 세례, 곧 물로 몸을 씻는 것은 안으로 성령이 죄를 사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표적이다. ⑦ 세례는 교회로 들어오는 입교식이다.

3)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위원입교인규도》(1895)에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불가분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물로만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쓸데없으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 중히 여기고 예수님의 명대로 조차 세례를 받고

25) Ibid.

교회로 드려 올거시니라²⁶⁾

즉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쓸데없다고 논함으로, 성령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물로 세례 받는 것을 귀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4) 유아세례

《위원입교인규도》(1895)에서는 유아세례의 성경적 근거를 아브라함에게서 찾고 있다.

하느님이 아브라함의게 언약하실새 에밋논 사람의 주손 사지은혜를 베푸는
다섯시니 교회에 든 자의 어린오 하도흔이례를 밋을거시니라²⁷⁾

유아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에 믿는 사람의 자손까지 은혜를 베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소속된 어린아이들도 또한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5) 세례의 성경적 근거

《위원입교인규도》(1895)에는 세례의 성경적 근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26) Ibid.
27) Ibid.

성서에이뜻을 7로 친말씀이잇스니 주세히보기를 바라노라

마태이십팔장십구절

마가십륙장십오절십륙절

마태삼장십일절

요한일장삼십삼절

삼장오절

수도형전팔장십이절과삼십륙절부터삼십팔절 사지

구장십칠절십팔절

십장스십칠절

십륙장십스절십오절과삼십일절부터삼십삼절 사지

라마륙장삼절부터오절 사지

가라태삼장이십칠절

데다삼장오절

수도형전이장삼십팔절부터스십일절 사지

구약창세기십칠장십칠절²⁸⁾

《위원입교인규도》(1895)에 나타난 세례의 성경적 근거 구절은 총 16구절인데, 신약 15구절과 구약 1구절이다(마 28:19; 막 16:15-16; 마 3:11; 요 1:33, 3:5; 행 8:12, 36-38, 9:17-18, 10:47, 16:14-15, 31-33; 롬 6:3-5; 갈 3:27; 딤후 3:5; 행 2:38-41; 창 17:17). 선별된 16개의 성경구절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서의 세례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으로서 “그러므로 너

28) Ibid., p. 18.

회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는 말씀이다. 마가복음 16장 15-16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사 제자들의 믿을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하여 부활을 믿지 못함을 꾸짖으며 하신 말씀이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2)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중요성

이어서 나온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구절은 성령 세례에 관한 말씀이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1절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물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비교하면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라고 한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33절은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리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라는 말씀이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말씀이다.

(3) 전 도와 입 교로서의 세례

사도행전의 세례 구절들은 전도와 관련된 여섯 가지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① 사도행전 8장 12절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행하는 시몬을 전도하게 된 사건을 다룬 것으로서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라는 말씀이다. ② 사도행전 8장 36-38절은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교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에게 세례를 준 사건을 다룬 것으로서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라는 말씀이다. ③ 사도행전 9장 17-18절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을 다룬 것으로서²⁹⁾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라는 말씀이다. ④ 사도행전 10장 47절은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세례를 준 사건을 다룬 것으로서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29)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회심과 소명을 가리키는 그의 많은 직간접적인 언급들은(고전 9:1, 15:5-10; 갈 1:13-17; 빌 3:4-11; 고후 3:4-4:6, 5:16-21; 행 26:4-18) 바울의 복음과 사도직을 변호하는 논쟁적인 맥락에 등장한다. 그러나 이 구절들만 아니라 다메섹 사건을 예시하는 다른 구절들에서도 바울은 그의 복음과 사도직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만 근거하며, 그는 그 빛에 비추어서만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메섹 사건은 바울 신학과 사도로서의 그의 실존의 근거이다. 다음 책을 참조하라. 김세윤, 《바울 복음의 기원》(서울: 엠마오, 1994), 57. 바울은 다스에서 태어났으나 예루살렘에서 자랐으며, 그곳에서 교육도 받았다. 그는 랍비로서 탁월한 학식의 소유자였으며 바리새파, 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계열이었던 �마이 학파에 속하여 있었다. 율법과 이스라엘 선조들의 유전에 지나치게 열심이었던 바울은 두 가지 중요한 이유로 하여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였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의 예수를 하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메시아라고 선포하였기 때문이었다. 둘째,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나사렛의 예수를 메시아로 선포하고 또한 율법과 성전의 의식을 비판하는 일은 율법과 조상들의 유전을 위협하고, 그것들로부터 배교하는 짓이라고 생각한 바울은 비느하스나 마타디아스 및 그 외의 하나님, 율법, 이스라엘의 순결에 ‘열정을 가진 자들’(Zealots)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박해하였다. 이러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다음 책을 참조하라. 김세윤, 《바울복음의 기원》(서울: 엠마오, 1994), pp. 547-548.

하고”라는 말씀이다. ⑤ 사도행전 16장 14-15절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그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건을 다룬 것으로서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는 말씀이다. ⑥ 사도행전 16장 33절은 바울과 실라가, 점을 치는 귀신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 귀신을 축출한 이후 옥에 갇혔지만, 간수와 그 권속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건을 다룬 것으로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라는 말씀이다.

(4)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서의 세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들은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임을 강조하고 있다. 로마서 6장 3-5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세례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는 말씀이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입었느니라”는 말씀이다.

(5) 회개와 죄사함으로서의 세례

디도서 3장 5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세

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는 말씀이다. 사도행전 2장 38-41절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는 말씀이다.

(6) 유아세례의 성경적 근거

창세기 17장 17절은 “아브라함이 엎드리어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 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 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라는 말씀이다. 유아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에 믿는 사람의 지손까지 은혜를 베푸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위원입교인규도》(1895)에서 유아세례의 성경적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하느님이아브라함의게언약하실 때에믿는사람의지손까지은혜를베푸는
다하섯시니교회에든자의어린오호또호이레를밧을거시니라³⁰⁾

3. 《위원입교인규도》에 나타난 세례자 교육방안

《위원입교인규도》(1895)는 한국 장로교 최초의 세례자 교육서로서 장

30) Ibid., p. 17.

로교회의 원입교인(願入敎人)이 배워야 할 신앙안내서이다. ‘원입교인’(願入敎人)이란 ‘입교를 원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결국 세례 준비자를 뜻하는 것이다.

《위원입교인규도》(1895) 서문을 보면 이 책의 목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예수교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무엇을 행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입교하려면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가? 예수교와 조선에 있던 유교와 불교와 천주교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대해 《위원입교인규도》(1895)는 답을 주기 위함이다. 아울러 예수를 믿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갑신년에 예수교목수들이 미국에서 조선으로나왔으니 지금 십여년이라 그전에 조선에는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서민천주교도 있고 매지금 사람들이 예수교가 무어인지 모르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무어일지 모르고 무어일지 모르치셨는지도 모르며 이 교회에 드려오려 하면 무어일지 모르던지도 모르며 예수교와 이왕 있던 교가 엇더케 다른지 못나디 책을 보면 자연이 다 알거시니라…… 교회로 드려오려 하는 사람을 위하야 책을 지었시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죄를 뉘우쳐 곳치지 아니하면 책을 보고 례를 다 조출지라도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업느니라³¹⁾

연구 결과 세례 준비자를 위한 초보적 기독교 교리서(Manual for Catechumens)로서 《위원입교인규도》(1895)는 세례 준비자 교육 교안을 각종 기도문, 성서공부, 수주일론(守主日論), 성례론, 교회규모, 교회치리법, 연보전조략, 찬송시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위원입교인규도》(1895)에 나타난 세례 준비자 교육 교안을 한 가지씩 연구하기로 한다.

31) Ibid., p. 1.

1) 예수교와 예수교회의 정의

예수교란 무엇인가? 예수교회란 어떤 일을 행하는가?

예수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람의 죄를 사하고 형벌을 면하여 하나님과 사람과 화친케 하는 교이니 예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서세우신 교회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드려와서 각각 제 성 이름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구약과 신약을 비호하며 주일을 직회고 하나님만 공경하며 하나님의 주신 도를 온전하게 사람에게 전하여 예수를 증거한느니라³²⁾

상기한 《위원입교인규도》(1895) 서문처럼 예수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람의 죄를 사하고 형벌을 면하여 하나님과 사람과 화친케 하는 종교이다.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만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 천하 사람들에게 전하여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2) 입교자 행동지침

입교를 원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모든 거짓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공경해야 한다.

교회로 드려오려 하는 사람은 먼저 제 죄를 회개하야 원통이 뉘우쳐 곳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하여 주신 주로 믿고 의지하야 위하던 거짓거슬모도 버리고 영

32) Ibid., p. 2.

3) 각식 도고문(各式禱告文)

도고는 무엇인가? 도고는 어떻게 하는가? 《위원입교인규도》(1895)는 도고란 하나님과 사귀어 화친하고 하나님께 빌고 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죄인의 중보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고하느거손하느님의사귀어화친하고하느님 썩빌고구하느거시니라
하느님이지극히거룩하시니우리죄인들이예수의공로와일함을의지하야
하느님 썩빌거시오또 예수뵈기하느님과죄인의게중보가업스니아모사름
이던지예수만의지하면 하느님 썩빌수잇느니라³⁴⁾

또한 《위원입교인규도》(1895)는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긍휼히 여기심을 감격하게 알고, 죄를 사하심을 구하며, 권속을 데리고 기도하며, 회당에서 교우로 더불어 기도하며, 정성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제안하고 있다.

기도하느곳과기도하느새는작명이업스나그러하날마다아침과저녁
에 하느님 썩도오심을구하고어엿비녀이심을감격하계알고죄를사하심을구
하느거시맛당히하일이니사름마다스스로기도하고권속을다리고기도하며
회당에서교우로더드리기도함이다도하느거시니라 기도하느거손무슴물건과
향촉으로써할거시니오다만정성으로 예수를의지하야 하느님 썩기도할

33) *Ibid.*, p. 2.

34) *Ibid.*, p. 4.

《위원입교인규도》(1895)에서 제시한 기도문은 ① 죄를 알아 회개한 사람의 첫째 기도인 ‘인죄회개인도고문’ (認罪悔改人禱告文) ② 예수를 믿는 사람이 조용히 기도하는 ‘신도묵도고문’ (信徒嗚禱告文) ③ 권속을 데리고 기도하는 ‘솔권속도고문’ (率眷屬禱告文) ④ 여러 교우가 예배시 기도하는 ‘중교우예배시도고문’ (衆敎友禮拜時禱告文) ⑤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하는 ‘반시도고문’ (飯時禱告文) ⑥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유아도고문’ (乳兒禱告文) ⑦ 주기도문인 ‘주도고문’ (主禱告文) 등이다. 이 모든 기도문들은 입교를 원하는 세례 준비자들에게 기도의 나침반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중에서 죄를 알아 회개한 사람의 기도문인 ‘인죄회개인도고문’ (認罪悔改人禱告文)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극히높고시고지극히올흐신하늘에계신우리아바지제가죽을죄를범하
출을알고구원얻을줄을알지못하오니저를어엿비녀이사구원얻는길을인도
하여주옵소서저는일즉죄를만히범하엿시나지금은원통하회회기하고죄
를써나하느님 썩만절하고저하옵느이다제죄를다사하여주옵시고제악한
음을변하야새사름이되게하여주옵시고제가엇더케하야맛당히할일을하
느님의뜻대로다그려주옵소서이것뿐아니오라하느님의아들이되게하
여주옵시기로바라옵느이다구원하여주시는주예수그리스도의일함으로비옵
느이다아멘³⁶⁾

35) *Ibid.*, p. 4.

36) *Ibid.*, p. 5.

4) 성서공부(聖書工夫)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성서공부는 어떻게 하는가? 《위원입교인규도》(1895)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보호하는 양식이 되고, 말씀으로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에 성서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날마다 때를 작정하여 권속과 함께 성서를 읽고 묵상하며, 글만 읽지 말고 뜻을 알아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느님말씀은우리영혼보호하는양식이되고또이말씀으로써성신이우리마음을씻고하게하시니이공부가가장긴하느니라예수를믿는사람이날마다새로작정하여권속을다리고성서몇귀절씩읽고또거룩대로보며더욱주일은조심하여뜻을깊히심각할거시오성서를볼새에글만읽지말고뜻을알아순종하고혹다른사람을그러지라고그뜻을익힐거시오신약을보면서그뜻을뵈게프러낸칙을조보면더욱도홀거시니³⁷⁾

5) 수주일론(守主日論)

주일은 어떻게 지키는가? 《위원입교인규도》(1895)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을 주일이라고 함을 강조하면서, 예배당에 가서 말씀을 들으며 성경을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착한 행실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37) Ibid., p. 10. 《위원입교인규도》(1895)에는 원입교인(願入敎人)들을 위해 추천한 책들이 있다. 즉《터로지귀》, 《량우상론(兩友相論)》, 《예수교문답(耶穌敎問答)》, 《묘죽문답》, 《구세론》, 《인가귀도(引家歸道)》, 《복음요서》, 《구세진전(救世眞銓)》, 《신약로가복음》, 《신약요한복음》 등이다.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 오직 예수를 믿는 선생을 구하여 학당을 세우고 가르칠 책들도 언급했다. 《예수교문답》, 《훈오진언》, 《터로력정》, 《신약로가복음》, 《論孝撮要(논효촬요)》, 《眞理使讀二字經(진리편독삼자경)》 등이다.

우리주예수그리스도가십자가에죽으셨시나곳하느님이신고로삼일만무덤에계시다가다시살아하늘로올나가셨느니라그후부터예수를믿는사람들이그다시살아나신날동안식일을직회즉주일이라하느니라……문답에닐으시던안식일을엇더케직회하노호상하던일도아니하며회통하고노는일도아니하고레비당에가서도리도드르며또성경을보고기도하며노래를불너하느님을찬미하며도훈말을하며이날은더욱착한행실을행하느니라³⁸⁾

6) 근수예배규모(謹守禮拜規模)

예배를 어떻게 삼가 드리는가? 《위원입교인규도》(1895)에 의하면,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마음으로 담배를 피우지 말며, 문안하지 말며, 공손히 예배를 다음의 순서대로 드리도록 모범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찬양, 기도, 성경봉독, 대표기도, 찬양, 설교, 기도, 연보, 찬양의 순이다.

일 찬미시를부를거시오 이 기도할거시오 삼 성경을볼거시오 스 교우중예혼사람이나두사람이나기도할거시오 오 찬미시를부를거시오 육 성경뜻을프러그러칠거시오 칠 기도할거시오 팔 연보전을드릴거시오 구 찬미시를부를거시오³⁹⁾

만일 예배당이 멀거나 나이가 많거나 병이 있어 갈 수 없다면 권속이나 이웃 사람이 데리고 한 달 동안에 1주 혹은 2주 정도 예배드릴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일년 동안 주일 공부는 성서를 차례로 볼 수 있도록 53주 계

38) Ibid., p. 12. 연구한 결과 인용문에 나타난 ‘문답’은 다음과 같다. H.S.C. Nevius, 《예수교문답》, H. G. Underwood 역(경상: 그리스도성서, 1894), 28. 원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41문 사바트날을엇더케직회하노 답 삼일도아니하며레비당에가서도리도드르며또성경을보고기도하며노래를불너하느님을찬미하며도훈말을말하고이날은더욱착한행실을행하느니라.”

39) Ibid., p. 13.

획안을 작성하였다.⁴⁰⁾

7) 성례론(聖禮論)

성례는 무엇인가? 세례와 성찬은 무엇인가? 《위원입교인규도》(1895)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성례의 목적은 ①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더욱 든든히 믿게 하며 ② 세상 풍속을 끊어버리게 하며 ③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은덕을 더욱 중히 여기게 한다. 성례의 집행자는 목사이며, 성례의 의의는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인친 표적이다.

예수-교회를 세우실 때 성례 두 가지를 행하셨으니 이 두 가지는 세례와 성찬이라 믿는 사람의 계은혜를 베프러 더욱 든든히 믿게 하고 세상 풍속을 끊어버리고 예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은덕을 더욱 중히 여기게 하는 거시라 이 성례는 목사가 베프는 거시니 믿는 사람의 계은혜와 연합하게 하는 인친 표적이니라⁴¹⁾

《위원입교인규도》(1895)에 나타난 세례의 이해는 언급하였으므로, 성찬을 간단히 다루기로 한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상하고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성례로서, 구약의 유월절 어린양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샘플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아울러 세례를 받고 입교하여 성찬의 뜻을 자세히 아는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40) *Ibid.*, pp. 14-16. 예를 들면 1주차 마태복음 1:18-25, 누가복음 1:26-39, 2주차 누가복음 2:1-20, 3주차 마태복음 2:1-23 등이다.

41) *Ibid.*, p. 17.

성찬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몸을 상하고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성례라 예수가 세상에 강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유월절을 직회하여 양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시니 이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사를 할 장본을 미리 그치임이라……예수가 죽으심으로 제사를 하셨으니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제사를 할 것 업을 뿐 아니라 만일 제사를 하면 예수의 죽으심으로 제사를 한 거슬 업수 이 녀는 거시니 세례를 받고 교회로 드려와 성찬 뜻을 주세 하야는 사람이라야 먹을 거시니라⁴²⁾

8) 예수교회 규모(耶穌敎會規模)

입교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위원입교인규도》(1895)에 의하면 마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를 볼 것이며, 십계명(十誡命)과 교회 규모(敎會規模)를 보고 입교한 사람이 순종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⁴³⁾ 산상수훈과 십계명, 주기도문이 세례 준비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세례자 교육 자료인지를 인식하고자 한다. 특히 주기도문은 《위원입교인규도》(1895) ‘각식 도고문’ (各式禱告文)에서 강조하고 있다.⁴⁴⁾ 여기에서는 아직 언급되지 않은 ‘교회 규모’ (敎會規模)를 소개하고자 한다. ‘교회 규모’ (敎會規模)는 교회 밖의 사람을 위하여 설립한 것이 아니라 교회 사람을 위하여 설립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교회로 들어와 세례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준행한다. 아울러 교회 밖의 사람이 입교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죄를 회개하고 주를 믿는 길 외에는 없음을 강조한다. ‘교회 규모’ (敎會規模)는 일곱 가지로 되어 있다. 즉 조상제사도 지내지 말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만을 공경할 것, 주일을 정성으로

42) *Ibid.*, pp. 18-19.

43) *Ibid.*, pp. 20-21.

44) *Ibid.*, p. 9.

지킬 것, 부모 생전에 정성으로 공경할 것, 한 남편에게 한 아내일 것, 자기 집사람을 권하여 한마음으로 주를 믿고 섬길 것, 일하고 먹을 것이며 바른 사업을 힘쓸 것, 술과 아편연과 잡기를 금할 것 등이다.

일 일절귀신을놓혀밧드느거시하느님 씨서뉘워히시느거신즉심지어조상의게제스지내느일관이라도풍속을좃지말고맛당이홀노흐나이신하느님만공경호고섬길지니라

이 주일이곳한식호느날이니하느님 씨서작당히신거룩한날인즉사람과륙축이라도이날에는일호지못홀거시니비록싱이에소관이라도대단이긴급한일이아니어든옛시동안에부조러니일을호고이날은정성으로로직할지니라

삼 부모를효도로써공경호느거시하느님 씨서명히신거신즉부모성전에정성으로공양호고힘을다호야효순호기를훈갈갓치주의명을좃출거시니라

스 혼지아바게혼지어미느하느님 씨서작당히신거신즉가히서로보리지못홀뿐아니라안히잇고첩을두지못홀거시오지아비잇고실형치못홀거시니라

오 제가호느거시성도의문져힘쓸거신즉각각제집사람을권호며힘써찬송호고 기도호야호므옴으로쥬를밧고섬길거시니라

륙 일호고먹느거손하느님 씨서명히신거신즉무론누구던지가히늘고먹고놀고입지못홀지니라게으르지말며거짓말말고탐호지말며도적질말며반드시바른소업을힘써그몸과가속을먹일거시니라

칠 술취호고잡기호느거술다만성서에급홀뿐아니라다토고사호고죽이고상호느거시미상불여괴서니러난즉감히몸소범호지못홀 뿐만아니오또한가히술을비조며아편연을먹고팔며잡기를식히여사람의형살에방해롭게할지니라⁴⁵⁾

45) Ibid., pp. 22-23.

그러나 ‘십계명’(十誡命)과 ‘교회규모’(教會規模)는 자기의 힘으로 지키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의 감화하심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지킬 수 있음을 《위원입교인규도》(1895)는 역설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원입교인규도》(1895)는 세례 준비자들, 즉 원입교인(願入敎人)들이 성령의 역사를 중요하게 인식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느님의말씀을밧는사람은정욕을조출것업느니라하느님의성신이우리를위로호시고성경뜻을볼게르치시고우리들인도호야세상정욕을이리게호고우리모음이점점예수의모임과갓치되게호느니라⁴⁶⁾

9) 교회치리법(敎會治理法)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위원입교인규도》(1895)는 네 가지로 교회치리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 목사와 선교사를 세우고 장로와 집사를 세우심, 목사와 장로가 당회가 되어 원입교인 중에서 입교인을 작정하고 책별도 함, 각처 교회들의 목사들과 장로들이 모여 노회가 되어 목사와 당회를 다스림 등이 다.

일 교회의머리가예수뿐이라예수밧기는교회다스리는님금이업스니교황세운거시성서에어그러진일이라

이 수도가직분을밧길새에목수(혹칭감독)와선도수를세우고또각처교회에장로와집수를세웠느니라

삼 각처교회에목수와장로들이교회를다스리는당회가되어원입교인중

46) Ibid., p. 24.

에입교인을작명하는것과교회를슬퍼사람으로만드는모임이점점곳에예수의
 마음을조차가게하며혹척별도하는나라
 스 각처목사와각처교회에서온장로들이모혀로회가되어목사와당회를
 다스리며교중일을슬퍼경영하는나라⁴⁷⁾

이어서 《위원입교인규도》(1895)는 상기한 법대로 교회를 세우기 전에
 목사가 사람을 선별하여 ‘조사’ (助事), ‘령수’ (領袖), ‘집사’ (執事)를 세
 워 직분을 맡길 것을 피력하고 있다.⁴⁸⁾

10) 연보전조락(捐補錢條畧)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하나님께 헌금을 어떻게 드
 리는가? 《위원입교인규도》(1895)에서는 ‘목사’ (牧師)와 ‘령수’ (領袖)와
 ‘집사’ (執事)가 연보전을 예배당 비용, ‘조사’ (助事) 월급, 병든 자와 어
 려운 자 심방비, 교회 밖 이웃 구제비 등으로 사용하며, 예전에는 귀신을

47) Ibid., 25–26. 《爲願入敎人規條》敎會治理法 4개항을 위한 성경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알: 마 28:20; 엡 1:22, 23; 갈 1:16; 마 23:8–12, 야: 없음, 삼: 행 20:28; 히 13:17, 스: 엡 4:11, 12; 딤후전 3:1–12; 행 14:23, 20:17, 28, 21:17–18; 뱌전 5:1–4; 행 6:1–6, 15:1–29; 딤후전 1:5–9; 딤후전 4:14.

48) Ibid., 25–28. 한국 교회 초기 직제로는 ‘목사(혹칭 감독)’와 ‘선도사’, ‘장로’, ‘집사’가 있었으며, 임시직으로 ‘조사’(助事)와 ‘령수’(領袖)가 있었다. ‘조사’(助事)는 목사를 도와 일을 의논하고 각처 교회로 다니면서 일이 어찌 되어 가는지를 살펴 교회에 유익하도록 하며, 전도를 부지런히 하며, 각처 교회로 다니다가 목사가 없다면 예배를 인도하며, 성서를 부지런히 공부하여 각처 교회로 다니면서 영수와 교우와 원입교인을 자세히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 ‘령수’(領袖)는 목사와 조사를 돕고 일을 다 의논하여 원입교인이 있거든 그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목사에게 주고 교회에 유익하도록 힘써 일을 보고 교우나 원입교인 중에 책벌할 사람이 있다면 당회에 말을 하며, 목사나 조사가 없을 때에는 예배를 인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선별하여 인도하게 하며, 교우 중에 병이 있거나 재난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가서 보고 기도하며 위로하였다. ‘집사’(執事)는 연보전을 모아서 받은 후에 얼마를 받았으며 어떻게 자세히 하였다가 일 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회계하여 교우에게 제시하며, 목사와 영수와 한가지로 교회재정을 경영하여 연보전을 교회에 유익하게 하며, 교우 중 어려운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환과 고독을 보호하여 도와주고 또 일없는 사람을 권하여 부지런히 일하게 하고 일을 경영하여 맡기는 자였다.

두려워하여 재물을 썼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에 감사의 마음으로 즐거움과 미리 예비함으로 연보전을 드리라고 제안하고 있다.

목사와령수와집사가연보전을가지고레비당에쓰는것과조스월급을담당하고교중에병든사람이나어려운사람을돕고조할수있는대로교밖의사람이라도도을거시니라이전에는귀신을두려워하여지물을썼더니지금은예수는혜를밧엇시니불가불감사하는마음으로즐겁게드릴거시오연보전드리는거시사람의칭찬함을취하여드리거시아니오하느님의은혜를감격하게하는거시니라 주일마다집사가연보전을밧느니교우들이각각하느님이드으샤리를얻게하신대로미리예비하였다가드릴거시니라⁴⁹⁾

11) 찬송시(讚公禱詩)

찬송은 어떻게 부르는가? 《위원입교인규도》(1895)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며, 노래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성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전부터하느님을공경하는사람이조연향상스랑하고감사하고깃쁜마음으로하느님을높혀찬송하고친근하라하는거시라 찬송시부를세에노래로만 할거시아니오정성의마음으로하느님을공경하여할거시니라⁵⁰⁾

49) Ibid., pp. 29–30. ‘捐補錢條畧’에서 제시된 성경구절은 마 6:1–4; 눅 21:1–4; 행 20:35; 롬 10:14, 15; 고전 16:1–3; 고후 8장, 9장; 갈 6:6–10; 엡 4:28; 딤후전 6:17, 18; 히 13:16; 레 27:30–32, 잠 19:17; 말 3:10 등이다.

50) Ibid., p. 31. ‘讚公禱詩’에서 제시된 성경구절은 엡 5:19; 갈 3:16; 시 95:1–3, 98:4–6, 106:5 등이다.

《위원입교인규도》(1895)에서 제시한 다섯 개의 찬송시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一 내죄를 씻는 거슨 예수 피뵈밧기 업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 피뵈밧기 업네
예수 흘니 거슨 나를 희게 하 피
귀 흠도 귀 하다 예수 피뵈밧기 업네
- 二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 피뵈밧기 업네
샤죄 하느 빙 거든 예수 피뵈밧기 업네
- 三 죄를 속하느 것도 예수 피뵈밧기 업네
내 공노하 업네 예수 피뵈밧기 업네
- 四 부라고 평안 하느 것도 예수 피뵈밧기 업네
내 올 흠이 이것뿐 예수 피뵈밧기 업네
- 五 영화 영화 이 말뿐 예수 피뵈밧기 업네
이 결 노찬 미 하네 예수 피뵈밧기 업네⁵¹⁾

12) ‘원입교인’의 교사로서의 ‘조수’

‘원입교인’(願入敎人)을 누가 가르쳤는가? 《위원입교인규도》(1895) ‘교회치리법(敎會治理法)’에 의하면 ‘조수’(助事)가 성서를 부지런히 공부하여 각 교회로 다니면서 ‘령수’(領袖)와 ‘원입교인’을 자세히 가르쳤다고 언급하고 있다.

51) *Ibid.*, pp. 32-33. 『讚美詩』에서 제시된 다섯 개의 찬양은 ‘찬미상대복의근원’, ‘예수나를 사랑 하오’, ‘내죄를 씻는 거슨’, ‘사랑하세 예수’, ‘예수 인도하소서’ 등이다. 소개된 ‘내죄를 씻는 거슨’은 장로교 찬송가인 《찬성시》(경성: 예수교회당간, 1895), 제21장이다.

성서를 부조리니 공부 하야 각 교회로 다니면서령수와교우와원입교인을
주세히 가르칠거시니라⁵²⁾

물론 ‘령수’(領袖)는 목사와 조사를 도와 원입교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목사에게 주고, 교우나 원입교인 중에 책벌할 사람이 있다면 당회에 말하는 역할을 하였다.

목사와조수를 돕고일을 다하느 원입교인이잇거든그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야목사의게주고교회에유익하도록힘써일을보고교우나원입교인중에
책벌할 사람이잇거든당회에말할거시오⁵³⁾

연구 결과 ‘조수’(助事)가 《위원입교인규도》(1895)를 교재로 삼아 세례 준비자인 ‘원입교인’에게 성경을 상세히 가르쳤으며, ‘령수’(領袖)의 보고로 ‘원입교인’ 중 책벌할 사항에 대하여는 당회에서 결정할 정도로 철저하게 세례 준비자 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가는 말

《위원입교인규도》(1895)의 의의, 세례의 이해, 세례자 교육방안은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009년 2월 현재 1006동의 군인 교회들을 포함한 한국 교회는 세례를 삶 전체의 통전적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⁵⁴⁾ 세례는 한 개인의 한 순간의 사건이 아니다. 또한 세례 받는 한 순간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세례자 교육시 입교자의 삶을 강조하

52) *Ibid.*, p. 27.

53) *Ibid.*

여야 한다. 입교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위원입교인규도》(1895)에 의하면 마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를 볼 것이며, 십계명(十誡命)과 교회규모(教會規模)를 보고 입교한 사람이 순종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산상수훈과 십계명, 주기도문은 세례 준비자에게 중요한 세례자 교육 자료이다. 특히 주기도문은 《위원입교인규도》 ‘각식 도고문’ (各式禱告文)에서 강조하고 있다. 한편 《위원입교인규도》 ‘교회규모’는 교회 밖의 사람을 위하여 설립한 것이 아니라 교회 사람들을 위하여 설립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교회로 들어와 세례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준행해야 한다. 결국 《위원입교인규도》는 세례 준비자들, 즉 원입교인(願入敎人)들의 삶을 강조하는 세례자 교육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군인 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는 세례자 교육을 실시하고, 확실한 신앙고백을 확인한 후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세례 대상자는 세례자 교육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대상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고백해야 한다. 이러한 신앙고백이 없는 세례 대상자에게 세례를 주는 일은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격하시키는 일이 된다. 향후 모든 교회가 세례자 교육을 충실히 실시하고, 세례 대상자들은 분명한 신앙고백을 한 후 세례를 받아, VISION 2020 이 알차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표 1 : 《위원입교인규도》(1895)에 나타난 세례자 교육방안 도표

문헌명	의의	세례의 이해	세례자 교육방안
《위원입교인규도》(1895) 馬布三悅 (Samuel Austin Moffet)	1. 한국 장로교 최초의 세례자 교육서로서 장로교회의 원입교인(願入敎人)이 배워야 할 신앙안내서 2. 세례 준비자를 위한 초보적 기독교 교리서 (Manual for Catechumens)	1.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거 베풀 2.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 언약한 은혜 입는 것을 인쳐 증거함 3. 거룩한 교회로 들어 오기를 기쁘게 여기는 맹세 4. 성령이 죄를 사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표적 5. 교회로 들어오는 입교식 6.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불가분의 관계 7. 세례의 성경적 근거 제시	1. 예수교와 예수교회의 정의 2. 입교자 행동지침 3. 각식 도고문 (各式禱告文) 4. 성서공부(聖書工夫) 5. 수주일론(守主日論) 6. 근수예배규모 (謹守禮拜規模) 7. 성례론(聖禮論) 8. 예수교회규모 (耶穌敎會規模) 9. 교회치리법 (敎會治理法) 10. 연보전조략 (捐補錢條略) 11. 찬송시(讚美詩) 12. ‘원입교인’의 교사로서의 ‘조식’

54) Jan Marinus van der Linde, *Die Welt hat Zukunft*, übersetzt und bearbeitet von Dr. Peter Meier(Bassel: Kassel, 1992); Klaus Schaller, *Die Pädagogik des J.A. Comenius und die Anfänge des Pädagogischen Realismus Im 17 Jahrhundert* (Heidelberg: Quelle & Meyer, 1962); Jan Amos Komensky, *Wirkung eines Werkes nach drei Jahrhunderten* (Herdelberg: Quelle & Meyer, 1970); Biehl, Peter, "Johann Amos Comenius," Henning Schröder/Dietrich Zilleß(Hg.) in: *Klassiker der Religionspädagogik* (Frankfurt am Main: Diesterweg, 1989).